



「소녀초상」 복원 전과 후

오랜 역사를 가진 복원가(restorateur)라는 직업이 현대에 와서 컨서버터로 개명된 데는 복원가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복원방식의 계승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쇠신하고 적극적인 복원작업보다는 손상을 예방하고 보호가 우선이라는 보존(conservation)의 중요성이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습관대로 복원가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컨서버터와는 정확히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예술의 치료사, 컨서버터

김주삼 | 삼성미술관 리움 보존연구실

conservator

Conservator

보존을 의미하는 컨서베이션이라는 영어 발음 때문에 많은 국내 사람들이 별 고민 없이 컨서베이터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으나 영어권에서는 컨서베이터로 칭하고 있으며 실제로 컨서베이터라고 하면 전혀 다른 의미로 통용된다고 함.



1

사람들을 만나서 명함을 건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술관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되물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들에게 명함에 한글로 적혀 있는 서양화 보존 담당연구원이라는 타이틀도 그렇고 컨서버터(conservator)라는 영문 명칭 모두가 생소한 모양이다. 이럴 때마다 간단하게 미술품 복원가라고 답변을 한다. 그러면 최근에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벽화나 최근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복원작업이 크게 기사화되어 대부분의 경우 별 설명 없이도 감을 잡게 된다. 더구나 몇 년 전에 개봉된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 덕에 이 분야의 문외한에게도 이 직업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이 영화에서 분위기 있게 생긴 남자 주인공의 직업은 옛 그림을 복원하는 일이다. 미술품을 복원하는 일이 영화의 주된 소재는 아니지만 주인공이 오래된 유화 작품의 목은 때를 약품으로 걷어내고 손상된 부분을 처리하는 복원 광경들이 많이 나온다. 영화 중간에는 '복원작업이 지난 세월을 되살리는 유일한 직업'이라는 명대사까지 아우러져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에게 복원 분야가 매우 매력 있는 분야로 소개되었다.

이 영화에서 복원하는 사람의 호칭을 복원사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실은 컨서버터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처럼 우리에게 복원가로 익숙한 컨서버터라는 직업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국가에서는 17세기부터 이미 복원가(restorateur)라는 정식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공방에서 마스터로부터 고유의 기술을 전수받는 소위 도제 방식으로 양성되었다. 당시 복원의 의미는 작품의 역

사성이나 수명 연장이라는 현재의 개념보다는 손상된 작품을 단지 미관적인 면에서 회복시키는 일에 주안점을 두었다.

1960년대를 전후해서 많은 미술관 관계자들이 전근대적인 복원방법에 따른 보존상의 후유증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제시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은 국가 주도로 그들의 문화유산을 지켜나갈 복원가를 양성할 체계적인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유럽의 대학이나 국립학교가 복원관련학과를 개설함에 따라 이러한 공방들은 쇠퇴하였고 몇몇 오랜 전통의 공방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복원가(restorateur)라는 직업이 현대에 와서 컨서버터로 개명된 데는 복원가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복원방식의 계승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적극적인 복원작업보다는 손상을 예방하고 보호가 우선이라는 보존(conservation)의 중요성이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습관대로 복원가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컨서버터와는 정확히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컨서버터라는 직종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복원가, 보존담당자, 보존전문가 정도로 할 수 있고 일본의 번역대로라면 수복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이 분야에서 적절한 번역을 찾지 못해 나름대로 부르고 있는 현재의 안타까운 실정이다.

필자는 보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럽의 미술관을 관람하고 온 사람들로 부터 간혹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몇백 년 된 미술작품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그렇

게 잘 보존되고 있는지 부러움과 궁금함이 반반씩 섞인 질문을 받게 된다. 그중에는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들은 대부분 복사본이며 진본은 따로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으리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는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인상파 그림은 대부분 복사본이라고 관광가이드가 설명했다면서 필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이렇듯 오래된 미술품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상태가 좋아 보이는 배경에는 유럽 국가들의 보존에 대한 사회적인 높은 관심과 높은 수준의 복원기술과 복원가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인간이 나이를 먹고 늙어 가듯이 미술작품들도 물론 노화를 겪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인체의 피부나 근육이 원래의 탄력을 상실하고 사고 등으로 신체의 일부가 상하는 것처럼 미술품들도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적인 노화를 겪으며 사고나 재해 등으로 작품의 일부가 손상되는 피해를 보게 된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수많은 작품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모두 다소간 풍상을 겪어서 온전한 작품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전시한다면 미술관은 아마도 보기에도 흥취한 누더기들의 전시장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서 누더기가 되었어야 할 작품이 마치 방금 그려낸 것처럼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몸이 상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듯 미술작품도 심한 노화를 겪거나 손상을 입으면

미술품 복원가들의 치료를 받게 되며 이들의 노고 덕에 루브르의 작품들이 복사본이라는 의혹까지 받기에 이른 것이다.

미술품 복원작업은 손상된 예술작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예술의 한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 볼 수 있다. 물론 과거에는 단지 손상된 작품의 외관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할 면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복원작업은 기술적인 면보다 철저한 과학적인 사고와 엄격한 윤리성을 토대로 한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근대에 와서 미술품이나 유물을 단순히 미적, 경제적인 가치에 더 주안점을 두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들이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지적 재산이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작품 수명의 연장과 본래의 모습을 왜곡 없이 보존하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다. 복원이라고 할 때 말뜻처럼 마치 제작 당시의 모습대로 돌려놓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안료의 퇴색되거나 종이 산화되어 색이 변하는 것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있으므로 작품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본래의 모습이란 오히려 제작의 의도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최근에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조사해 본 결과 수차례에 걸쳐 복원작업을 거치면서 몇몇 성인들의 인상이 아예 변해 버려 작품의 원래 모습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왔다고 한다. 근래에 이러한 복원에 의한 작품의 왜곡이라는 문제점을 피하기 위하여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의



2

1 복원작업의 마지막으로 손상된 부분에 대한 메움과 색 맞춤 작업이 있다.
2 복원 대상이 되는 작품은 필요에 따라 X-선, 자외선·적외선 촬영과 화학 분석 장비 등을 이용한 작품 재료의 분석결과도 첨부한다.

도에 초점을 맞추어 가급적 최소한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작품에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복원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버린 셈이다. 이처럼 미술품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왜곡 없이 후세에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조되면서 적극적인 복원작업보다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인 조치가 중요하게 되었다. 즉 작품보존에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사고 안전 장치 등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작품의 수명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보존 관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돌발적인 사고나 지나친 노화현상에 의해 작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복원작업이 불가피하게 된다. 복원은 앞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진행되지만 실제 작업은 다루게 될 대상의 재질, 형태, 미적 기준 등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발굴현장에서 출토된 금속이나 목재유물의 경우는 발굴 직후부터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므로 보존을 위한 처리가 더 우선되고 석탑, 야외 조각처럼 외부에 노출된 작품들은 손상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된다. 회화나 도자기처럼 감상의 목적이 중요한 문화재는 복원의 개념이 보다 강하다. 이러한 보존 대상의 다양성 때문에 컨서버터들의 전공도 정해진다.

복원작업은 이러한 전공 상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대상 작품의 보존상태를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손상된 작품을 복원하기에 앞서 정확한 상처부위와 증상을 알아내고 원인을 밝혀내야 적절한 처리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원

복원작업은 작품의 재질이나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크게 작품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물질 제거하는 클리닝 작업, 파손된 작품을 접합하여 모습을 되찾아 주는 접합, 더 이상의 손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보존조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실된 부분에 대한 메움과 색 맞춤 작업이 있다.

대상이 되는 작품에는 병원의 진료카드와 유사한 상태 조사 및 처리기록카드가 작성되게 된다. 여기에는 조사 중에 관찰되는 모든 정보는 물론 처리에 사용된 재료와 테크닉 등을 사진과 함께 기입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x-선, 자외선, 적외선 촬영과 화학 분석 장비 등을 이용한 작품재료의 분석결과까지 첨부한다. 이러한 기록카드는 향후에도 재처리가 필요한 경우 복원을 담당하는 이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관이나 취급상의 주의서 역할까지 하게 된다. 또한 작품을 취급하면서 얻게 되는 미술사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술사를 연구하는 이에게는 소중한 자료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복원작업은 작품의 재질이나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크게 작품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클리닝 작업, 파손된 작품을 접합하여 모습을 되찾아 주는 접합, 더 이상의 손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보존조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실된 부분에 대한 메움과 색 맞춤 작업이 있다.

미술품을 복원하는 일은 의사의 치료 행위와 곧잘 비교된다. 환자의 병을 고쳐주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사의 임무인 것처럼 컨서버터는 미술품에게 의사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들은 복원작업을 통해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소생시킨 후에 느낄 수 있는 보람과 유사한 감정을 찾게 된다. 그러나 더 큰 매력은 어떤 이도 감히 만져볼 수 없는 걸작들에 손을 댈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무도 모르는 작품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캐내는 재미는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이 직업을 아는 사람은 내게 취미 생활



1



2

1 한국화 복원 전경
2 서양화 복원 전경

하면서 돈을 버니까 좋겠다고 부러워한다. 본인 스스로도 굳이 부인할 생각은 없다. 반면에 일의 즐거움과 보람만큼이나 내 손 안에서 귀중한 미술품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어 항상 긴장과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자신의 판단착오와 사사로운 실수에 의해 귀중한 작품이 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컨서버터라는 직업이 마냥 낭만적인 일인 것만은 아니다. 최근에 와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컨서버터가 되고 싶어 하는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이 일의 특성과 전망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게 된다. 개중에는 이 분야가 우리나라에는 마치 미개척 분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은 외국의 경우보다 뒤늦게 출발하였지만 이미 70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나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립기관의 보존처리실에서 발굴된 금속유물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재 이들 기관 외에도 삼성미술관 리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서울역사박물관, 일부 지방 박물관 및 발굴기관에서 보존복원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1991년에 보존관련 연구자와 컨서버터의 모임인 한국보존과학회가 발족하여 국내 보존 분야의 보다 체계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숫자가 외국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없으며 그나마 고고유물 보존 분야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문화재인 회화, 벽화, 석재 등의 처리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문화재의 보존복원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의 육성이 시급

한 상황이다.

과거에는 복원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중앙박물관이나 문화재연구소 등 국가기관에서 연수생 신분이나 아르바이트로 일을 배워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이후로 경기도 용인에 있는 용인대학을 필두로 한서대학, 공주대학, 전통문화학교 등 여러 대학이 보존관련 학과를 신설하여 미래의 컨서버터를 양성하고 있다. 비록 초창기라서 커리큘럼 면에서 외국 대학에 미치지 못하고, 교수진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전공도 고고 유물이나 한국화 분야로 제약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서양화, 사진, 종이, 조각 분야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국내에서 배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유학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몇몇 학교에서는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으며 유학하고 귀국하는 학생들도 점차 늘고 있다. 현재 우리 문화재 보존의 현황은 아직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과거에 비해 컨서버터의 자리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안정적이고 적절한 수의 일자리가 확보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문화수준이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 현재 국가 차원에서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들과 지방의 문화재 보존을 위해 문화재 병원의 설립 방안들이 나오고 있어 문화 지킴이의 최전방에 있는 컨서버터의 미래는 밝다. 🌈